



Day 1.



카이스트 도서관

<소감>

: 도서관 탐방의 첫번째 장소는 카이스트 도서관이었다. 우리 학교 외에 대학도서관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었는데, 도학을 하자마자 도서관의 큰 규모에 놀랐던 기억이 난다. 잘 알려진 의분와 마찬가지로 내부 역시 수많은 장서가 책꽂이들 어차 있었던 것을 보고 부러움 마음도 들었다. 또한 학습 공간과 휴식 공간이 잘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학생들을 위한 공간이 잘 구축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강민, 이강민, 장초혜

Day 2.



국립중앙도서관

<소감>

: 도서관들의 중심부라 불리는 국립중앙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책가보고 싶었던 곳이었었는데 이번 답사를 통해 방문하게 되어 서가했다. 단순히 독서하는 공간만 있을 것이라 생각했었는데, 서고 이외에도 컴퓨터실, 영상실 등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공간이 제공되어 있어서 놀라웠다. 도서관을 탐방하며, 언젠가 나도 이런 멋진 곳에서 일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이강민, 이강민, 장초혜

Day 2.




백봉서

<소감>

: 이번 탐방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만큼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이번 도서관 탐방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자습실이였다. 도서관 한 층 규모와 맞먹는 방대한 크기의 자습실을 보며, 서울대 도서관은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구축되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강민, 이강민, 장초혜

Day 2.



서울대 도서관

<소감>

: 꿈의 대학 서울대 도서관을 방문하였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 만큼 서울대학교 도서관은 어떻게 생겼을까 하는 궁금증이 들었다. 이번 도서관 탐방에서 가장 놀랐던 점은 자습실이였다. 도서관 한 층 규모와 맞먹는 방대한 크기의 자습실을 보며, 서울대 도서관은 독서와 학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잘 구축되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강민, 이강민, 장초혜

Day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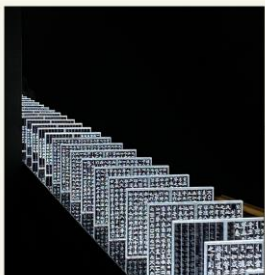

국립한글박물관

<소감>

: 이번 일정은 도서관이 아닌 박물관을 방문하였다. 국립한글박물관은 국립중앙도서관 앞에 위치해있다. 국종 앞에 박물관이 위치해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새로운 장소를 방문하게 되어서 좋았다. 박물관이니 지루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있었지만, 방대한 자료와 다양한 형상을 덕분에 한글에 대해 깊이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이강민, 이강민, 장초혜

Day 2.

별마당도서관

<소감>

: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별마당도서관을 방문하였다. 가장 마음에 보아 알려진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외양 탓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별마당도서관이 국책서연에 위치해 있는데, 이 점이 다른 도서관들과 확연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소망들에게는 사람이 지어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있는 점이 세련되고 느껴졌다.

이강민, 이강민, 장초혜

Day 3.



시청 통통투어

<소감>

: 첫째날은 서울 시청 투어를 시작하였다. 이번 답사는 도서관 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의 대표적인 장소들을 방문할 수 있어 더 유익했던 것 같다. 시청을 투어한다는 것이 다소 생소하게 느껴졌는데, 건물에 단순한 입구로는 보지 못한 거대한 것이 아니라, 유망한 예술 작품들과 서울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 있어서 가이드북의 안내에 따라 시청을 자세히 알 수 있어서 신기한 경험이 되었다.

이강민, 이강민, 장초혜

Day 3.



별마당도서관

<소감>

: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별마당도서관을 방문하였다. 가장 마음에 보아 알려진 도서관이라고 생각한다. 아름다운 외양 탓에 큰 인기를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별마당도서관이 국책서연에 위치해 있는데, 이 점이 다른 도서관들과 확연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보통 소망들에게는 사람이 지어주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시민들에게 무상으로 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있는 점이 세련되고 느껴졌다.

이강민, 이강민, 장초혜